

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 동향(10월 3주차)

| 국가 | 주요 동향 |
|------------------|--|
| 미국 바이어·수입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S사) 한국배가 이번주부터 미국 동부지역에 들어와 교포마켓을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임. 당초 연중 한국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우려되었으나, 당도·품질이 좋아 판매 호조 예상 ○ (Y사) 리스테리아균 여파 후 팽이버섯 소비는 서서히 늘어나고 있으나 수입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에 물건이 없어 비싼 가격에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. 최근 미국측 검역이 강화되어 수입량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음 ○ (J사) 코로나로 인한 요식업체의 정상적인 업무 재개가 늦춰지면서 수산물 판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. 하지만 김, 어묵 등 가공 수산물은 재택 소비용으로 꾸준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○ (H사/W사/O사) 코로나19 이후 홈쿡 열풍에 힘입어 HMR, 스낵류 등 수입 확대 및 온라인몰 연계 판촉 추진 ○ (J사/E사/H사) 추석 명절 기간 한국산 배 긴급수입 및 판촉 추진, 아직 물량이 부족하나 신고배 본격 수입 준비 중 |
| 유통·소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온오프라인으로 인삼 면역력 관련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 인삼제품의 매출이 크게 성장중(담당자 면담) ○ 코로나 영향으로 재택 시간이 늘어나면서 식물성 단백질 트렌드와 다이어트 키워드에 힘입어 두부 매출이 꾸준히 성장중 ○ 지난 10.7일 LA카운티 쇼핑몰 85일 만에 영업 재개로 코리아타운 및 한인 업소도 활기 |